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2월 25일(음력2월 6일) 수요일 (주간) 제462호

"나의 생명공학 윤회사상이 배경입니다"

세계적 과학자로 우뚝 선 황우석 교수

세계 최초로 복제된 인간 배아(胚芽)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데 성공해 세계적 생명공학자로 인정받은 황우석 교수(51, 서울대 수의학과 · 사진). 황교수가 과학적 성과 뿐 아니라 절(拜)과 명상을 생활화하고, 바쁜 연구생활 틈틈이 절에 다니며 마음을 가다듬는 독실한 불자 라는 사실이 알려져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다.

18년전 죽을 지도 모른다고 진단받을 만큼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무작정 버스를 집어타고 도착한 곳이 바로 강화 전등사. 황 교수는 자비로운 부처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만 자신도 모르게 절을 하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절을 한 황 교수는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이렇게 전등사와 인연을 맺은 황 교수는 수시로 전등사를 찾아 아침예불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 가기 3일전에도 전등사 부처님을 찾아 400배를 드렸다.

매일 명상, 무소유 정신 투철

인류 위한 헌신이 연구의 화두

황 교수는 '생명공학' 이라는 화두로 오로지 인류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방일 않는 정진과 하심이 몸에 밴 불자다. 지난 수년간 휴일과 명절을 반납한 채 하루 3시간 이상 잔 적이 드물 만큼 연구에 몰두했다.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미국 시애틀에 머물 때도 주최측이 예약한 고급 호텔을 마다하고 함께 간 연구원들과 하루 50달러도 안되는 허름한 모텔에 묵은 것은 그의 하심하는 자세를 보여준 일화다.

또 이번 연구로 많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 국제특허 출원이 이어졌지만 특허 지분의 60%를 서울대학교에 넘겼다. 나머지도 이번 실험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 외국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다. '너무나 풍족하면 도리어 나태가 온다'는 삶의 철학을 갖고 있는 그는, 더 많은 연구비를 타낼 수 있음에도 필요이상의 연구비는 사양한다. 말 그대로 '무소유 정신'에 투철한 그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어서 빨리 전하고 싶은 원력을 갖고 있다.

" 새벽예불 때 가끔 황우석 교수가 열심히 절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고 전하는 전등사 주지 계성 스님은, "한번은 같이 차를 한잔 하다가 '배아복제를 종교단체에서 반대하는데 스님의 생각은 어떠냐?' 고 물어 "과학을 발전시켜서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데 쓰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열심히 하기 바란다' 고 대답했더니 얼굴이 밝아지더라" 고 말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명상으로 하루를 여는 황 교수는 "불교의 윤회(輪廻)사상이 내 연구의 철학적 배경이 된 것처럼,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불교의 진리가 과학자들에 의해 입증될 것이고 따라서 인류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2월 15일 전국 선원장 초청 법회가 열린 조계사 대웅전과 극락전, 앞마당은 고우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운집한 3천여 '수행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禪 봄바람 탔다

조계 · 봉은 · 도선 · 보문사 잇단 법회로 관심 고조

선사들 사자후 '중흥의 서곡' 기대 가득

"고우 스님의 법석은 대단했지요. 3천명이 넘는 수행자들이 참여해서 환희심이 났습니다. 저의 의문점과 마음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간화선이 바르게 자리할 것 같습니다.(붓다뉴스 ID '영원한빛')

선(禪)이 봄바람을 탔다.

2월15일 '한국불교 1번지'인 조계사의 대웅전과 앞마당, 극락전에는 발디딜 틈조차 없이 들어선 사부대중의 구도 열기로 뜨거웠다. 조계사와 현대불교신문 주최로 이날부터 5월9일까지 3개월간 매주 일요일(12회) 열리는 '전국 선원장 초청대법회'의 첫날, 조계사에는 3천여 불자들이 참석해 고우 스님(각화사 태백선원장)의 법문에 눈과 귀를 집중했다.

일요법회 평균 참석인원의 10배나 많은 불자들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는 직장인들이나 거사들도 상당수 동참했다. '뇌박사'로 유명한 KIST 학습기억현상 연구단 신희섭(54) 단장은 "거사들이 많이 참석해서 수행불교의 전통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고우 스님의 법문을 통해 마음과 뇌에 대한 평소의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었다"고 말했다

조계종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이번 법회는 세간의 '간화선 위기론'이 한낱 기우였음을 밝힘은 물론 '선(禪) 중흥을 위한 서막이 아니냐'는 성급한 기대감마저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번 법회에는 서암, 청화, 월하, 서옹, 덕암스님 등 지난해말 입적한 현대 한국불교 1세대 선사들의 뒤를 이어 선풍을 진작시킬 차세대 선지식들이 처음으로 대중 법문을 한다는데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선원장 초청법회에 대한 큰 호응은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달 발표한 '신도 수행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1%가 가장 지도받고 싶은 수행법으로 참선을 든 사실에서도 예고된 것.

선의 생활화와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펼쳐지는 이러한 특별법석은 서울 삼성동 봉은사와 우이동 도선사, 상도동 보문사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봉은사는 2월21일부터 4월10일까지(총 8회)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선사와 강백이 펼치는 '봉은학림 육조단경 논강'을 개설한다. 고우 스님, 혜국 스님(제주 남국선원장), 성본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지안 스님(승가대학원장) 등 논주들이 <육조단경>의 사상과 참선의 요지를 들려준다. (02)516-5652

도선사는 3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태민안 기원 고승 초청 대법회'를 연다. 도영(포교원장, 3월 2일), 지하(종회의장, 9일), 암도(전 교육원장, 16일), 인환(경국사 회주, 23일), 종범(중앙승가대총장, 30일), 무진장(전 포교원장, 4월 6일), 법장 스님(총무원장, 4월 13일)이 생전예수재 일정에 맞춰 법문한다. (02)993-3161

보문사도 선의 대중화를 위해 3월 21~27일 7일간 '선사 초청 산림법회'를 개최한다. 조실~선원장급 선사 7인이 법석을 펼치는 이번 산림법회에는 고우(21일), 일오(월명암 선원장, 22일), 현산(화엄사 선원장, 23일), 혜국(24일), 무여(축서사 주지, 25일), 대원(학림사 조실, 26일), 혜정(법주사 회주, 27일) 스님 등이 법사로 나선다. 보문사는 오는 9월 1~9일에도 선사 9인을 초청해 법석을 열 계획이다. (02)823-7443

2년전 '수행체계 연구위원회'를 발족시킨 조계종이 최근 발간한 <불자 수행프로그램 현황조사 보고서>, 전국선원장회의를 중심으로 집필중인 (가칭)<간화선 수행지침서> 발간과 맞물려 잇달아 펼쳐지는 참선 법회들이 간화선 중흥이란 결실로 열매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7 · 24 · 25면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방장은 수행자 표상… 엄정한 추대를"

전국 선원수좌회 성명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함주 · 현산 · 인각)가 모 총림에서 새 방장스님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수좌회는 2월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총림의 방장이란 수행자의 표상으로서 사부대중의 귀의처가 되고 총림대중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며 납자의 공부를 점검하고 지도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분"이라며 "총림의 방장이 위와 같은 위상과 책무를 저버리고 본사주지 추천권을 행사하는 권력의 자리로만 여기는 작금의 행태는 한국불교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선원과 수행 풍토마저 무너지게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좌회는 △방장으로 추천 받는 분들께서는 정말 방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부처님 법과 선종사의 종헌에 나타나는 방장의 위상과 책무를 다할 수 있는지 양심적으로 살펴 현명한 결단을 내려줄 것 △문중의 이해관계로 산중의 이권에 의해 자파의 어른을 모시려는 비불교적이고 세속적인 판짜기식 행위를 지양하고 출가승단과 선종가풍의 전통을 존중해줄 것 △종회는 종헌 105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방장은 선, 교, 율을 겸비한 본분종사라야 한다' 는 종헌사항을 준수해 종회의 권유와 고유권한에 흠결이 나지 않도록 종회의 추대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것 등을 요구했다.

2면으로 계속

"대중화 위한 수행지침 필요"

조계종, '불자수행…' 보고서

최근 일고 있는 수행 열기의 일상화 · 대중화를 위해서는 통일된 체계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2월 17일 발행한 <불자수행프로그램 현황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다. 지난해 6월~12월 실시한 이번 조사는 일반불자들이 쉽게 접하고 있는 수행 · 수련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포교원은 참선, 간경 · 독경, 염불, 주력, 절, 사경, 위빠사나 등 불교 전통 수행법은 물론 선무도, 동사섭, 사불, 명상아카데미, 아봐타 등 최근 개발 · 보급되고 있는 프로그램까지 포함해 모두 12개 수행법, 53개 수행처에 대한 현황을 정리해 보고서에 실었다.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은 "전통 수행법을 계승 ·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활발한데 비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나 지도 지침, 체계가 미비한 곳이 많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8면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할'

그림 · 조태호

- 고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선원장 초청 대법회 대원 스님 '선과 깨달음' 2월 29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28면

갑신년 윤달엔 천년고찰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천년고찰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되어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이어 왔으며,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천년고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경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등 보물 및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윤장대는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많은 중생들이 정성껏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면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로우시며 영험한 부처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올해 갑신년에는 윤달이 있습니다. 윤달에는 "풍속에 결혼하기에 좋고, 수의를 관으로 짓는데 좋다. 모든 일을 꺼리지 않는다. 윤달에는 사람들이 다투어 와서 불공을 드리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하여 사방의 노인들이 분주히 달려오고 다투어 모인다."고 합니다(<동국세시기>). 특히 윤달에 생전예수재를 행하기 전에 탐생과 사찰순례를 먼저 하면 봄보살님의 무량한 가피가 한층 더 할 것이라 하여 사람들은 이름있는 절들을 찾아 방생을 합니다.

용문사에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40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용문사에 오셔서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모든 액이 소멸되고 바라는 바 소원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청 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40~6:30, 30분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 (우)757-800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